#### Daniel -1

Title: Introduction – Sermon Notes

Scripture: Daniel 1:1-2 Date preached: June 9<sup>th</sup> 2024

#### Scripture: Daniel 1:1-2

1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Jehoiakim king of Juda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and besieged it. 2 And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hand, with some of the articles of the house of God, which he carried into the land of Shinar to the house of his god; and he brought the articles into the treasure house of his god.

1 유디의 여호이임왕 3년에 비빌로나이의 느부깃네실왕이 예루실템을 포위하였다. 2 여호와께서 여호이임왕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기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 비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다.

#### Introduction

It's an exciting day today. It's the day that we embark on what will be a long, and at times difficult journey. But don't be discouraged ultimately you will find it to be a deeply rewarding journey. No deep study of God's revelation should leave us unchanged. And that will certainly be the case with Daniel. It will be a journey that will take us back to the ancient Babylonian civilization six centuries before the birth of Christ. A strange pagan world very different to the world we inhabit today. A place of weirdly named kings and rulers, mysterious gods and bizarre customs. Welcome to the glorious book of Daniel.

What can you expect in the weeks and months to come? Allow me to whet your appetite. Teenagers. Kings. Queens. Dreams. Statues. Magicians. Prayers. Astrologers. Lions. Beasts. Visions. Horns. Flames. Eunuchs. Numbers. Kingdoms. Gold. Goats and a ghostly hand. All of that is to come!

It's a fascinating book in so many ways. I'd say it occupies a unique place in the lives and bible reading experiences of many, if not most Christians. Daniel contains some of the best known and most loved biblical stories. I bet every Christian could tell you the story of Daniel in the lions den, an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fiery furnace.

These stories never lose their appeal, and believers of all ages find something uplifting in them. But equally when it comes to its future prophecies contained in the second half of the book it is one of the least well known, and least well understood books of the bible.

I suspect that many Christians enjoy the first half of the book a great deal, and then either put it down or struggle through the second half. Perhaps you've had a similar experience. The fist six chapters are a gripping read. But then it starts to get complex, and let's be honest a little weird. So as we begin it's worth addressing the following question;

Why should we take the time to read and study Daniel?

오늘은 들뜨고 기대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길고 때로는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단히 보람 있는 여행이 될테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니엘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6 세기 전의 고대 비벨론 문명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매우 다른 이상한 이교도들이 살던 세상. 이상한 이름을 가진 왕과 통치자, 기이한 신들과 희한한 관습이 있는 세상입니다. 영광스라운 다니엘서로 함께 여행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몇주, 몇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제가 맛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 왕들 여왕들 꿈 형

상 마술사 기도 점성술사 사자들 짐승들 환상 뿔 불길 내시 숫자 왕국 금 염소와 유령의 손 이 모든 것들을 만 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성경 읽기 경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기장 널리 알려지고 기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와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이벳느고의 이야기를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산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코 매력을 앓지 않으며, 모든 연령대의 신자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주는 무엇인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후반부에 기록된 미래에 관한 예언들은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의 전반부는 매우 흥미롭게 읽다가 후반부는 아예 읽지 않고 내라놓거나 끝까지 읽는 것을 어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여섯 장은 흥미진진합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솔직히 조금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해 볼 가차가 있습니다.

#### 왜 굳이 시간을 내어 다니엘사를 읽고 공부해야 할까요?

The obvious answer to such a question is that it is an important part of Gods inspired revelation. That makes it worthy of our time and attention. God didn't inspire writers to write and preserve things that are not of immense value and importance. But when it comes to Daniel there are a few particular reasons as to why we should devote our time and energy to its study. Let me give you three reasons.

Firstly we should study Daniel to properly understand and appreciate its prophetic accuracy. His predictions have been so accurate that many have actually called into question when the book was written. The critics claim that one man could not have made such predictions. That's true, one man alone couldn't, but Daniel wa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Let me give you one example. Daniel proclaimed that Israel's long-awaited Messiah would begin his public ministry 483 years after the issuing of a decree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Daniel 9:25-26). He further predicted that the Messiah would be "cut off," killed, and that this event would take place prior to a second destruction of Jerusalem. Doctor Hugh Ross has estimated that the probability of this coming true is 1 in 10 to the power 5. That's one chance in 100,000. And yet it came true exactly as predicted.

Daniel precisely predicted the rise and fall of four successive empires. He anticipated the reign of Alexander the great as well as the fall of Jerusalem. Most significantly Daniel spoke at length about the Messianic Kingdom to come. In fact 13 of the approximately 350 Messianic prophecies found in the Old Testament occur in Daniel. That so many of Daniel's prophecies have been fulfilled affirms that what we are reading truly is divinely inspired. There is simply no other explanation for his level of accuracy. What does this mean for us today? Well, seeing how these prophecies were fulfilled by God should give us a renewed sense of hope. We may be living in dark and difficult days but God has not forgotten us and His plans will never be thwarted.

Secondly studying Daniel is key to understanding end time prophecy. In many ways piecing together what will happen at the end of time is rather like a jigsaw puzzle. We have all of individual pieces and as we slot them into place the picture becomes clearer. As events are fulfilled God slots another piece into the completed puzzle. The question for us living today is how many pieces remain. There may be many more pieces to go, or the picture may almost be complete. Only God the Father knows.

Daniel received his prophecies a long time ago. And at the time they confused him. He was clearly being shown things beyond that lay way beyond his comprehension. He had no idea of what God's full future picture would be. But many of Daniel futuristic predictions are historical realities for us. We have witnessed, and are continuing to witness many of these pieces literally falling into place. Surely that's a great incentive for us to want to read and study this book.

Thirdly we should study Daniel to better help us appreciate God's sovereignty over difficult times. Daniel wrote about how we are to live with hope in a world of violence, suffering and endless sorrow. The importance of that truth has no expiry date. Today we are living in the modern equivalent of Babylon. A world in which Christian values and teachings are increasingly being pushed to the side and marginalised. We exist within a world in which sin, depravity and wickedness is praised, and God, and the things He holds dear are mocked and ridiculed. Things are bad right now, and they are only going to get worse. How can Christians endure? How are we to maintain our hope in these difficult times? Daniel reminds us that God always remains in control. So there you have it. Three very good reasons to be excited as we begin our study of Daniel. Let us now step back and take a survey of the book of Daniel.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 그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과 공을 들여 공부하야 하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정확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의 예언은 너무 정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실제로 언제 기록되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했습니다. 바평가들은 인간이 그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사람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은 지 483 년 후에 이스라엘이 오 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그의 공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안했습니다. 다니엘 9:25-26). 또한 그는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멸망되기 이전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cut off" 것이라고 예안했습니다. 휴 로스 Hugh Ross 박사는 이 예 언이 살현될 확률이 1/10 의 5 제곱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즉, 100,000 분의 1 의 확률입니다. 그러나 그 예안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연속적으로 존재했던 네 제국의 흥망을 정확하게 예안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와 예루실렘의 멸망을 예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다니엘이 마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에 관해 갈게 묘시한 것입니다. 살제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약 350 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 13 개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의 예언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시실은 다니엘서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 예언의 정확성은 하나님의 감동 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 지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둡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서는 종말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여러 면에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이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제자리에 끼워 넣기만 하면 그림이 더명확해집니다. 하나의 시건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퍼즐판에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신 것과 같습니다요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은 얼마나 많은 퍼즐 조각이 남았을까 입니다. 앞으로 맞추어야 할 조각이 많이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퍼즐판이 거의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니엘은 아주 오래 전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을 당시 다니엘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

신이 본 것을 분명하게 보았지만 그것들은 그의 이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마래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완전한 그림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마래에 관해 했던 예언 중 상당수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역시적인 시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조각들이 문자 그대로 제자리에 맞아 들어 가는 것을 목격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실이 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싶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지하기 위해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합니
다. 다니엘은 폭력과 고통,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다. 그 귀중한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대 바벨론과 같습니다. 가독
교적 가치관과 가르침이 점점 무시되고 소오되는 세상입니다. 조와 타락, ㅁ〓〓〓〓〓〓 그 , 하나님과 그분에게
소중한 것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충분히 나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악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
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사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기
지 아주 좋은 이유로 안해 우리는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기쁩니다. 이제 부터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 **Daniel survey**

Before diving into any book of the bible its useful to stand back and take a survey. We want to ask the kinds of questions we'd ask about any piece of writing. What is it I'm reading? Who wrote it? When was it written? Why was it written? To whom was it written? And, what's it all about? Once we have answers to those questions we can better appreciate what we are reading. So let's get started.

### 다니엘서 개요

성경의 어떤 책을 파고 들기 전에 뒤로 물라서서 먼저 그 책에 대해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어떤 책이든 그 것에 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뭐지? 작가가 누구지? 언제 쓰여졌나? 왜 쓰여졌을까? 누구에게 쓴 것일까? 그리고 무엇에 관해 썼을까? 그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그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 1 What is it I'm reading?

Well obviously you are reading a book of the bible. To be more precise a book of the Old Testament. Daniel is the fifth book of the Major Prophets and the twenty-seventh book of the Old Testament. It contains 12 chapters, 357 verses and in its original language form comprised 9001 words.

The Jews placed Daniel in the Writings section of their Bible. As you may be aware the Hebrews divided the bible into three sections.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writings. We might expect Daniel to appear in the prophets, but he was actually placed in the writings section. This was because Daniel was not a prophet in the sense in which the other Hebrew prophets were. Make no mistake, he functioned as a prophet, and he wrote inspired Scripture, but he was a government official (an administrator in a Gentile land) rather than a preaching prophet.

In terms of the genre of writing Daniel is very interesting. It is an intriguing mix of narrative history, prophetic oracle, and apocalyptic material.

Narrative history as its name suggests describes real events and situations as they played out in their particular historical setting. So in Daniel we are reading about the experiences of Jewish exiles who were taken to live in Babylon in the sixth century BC.

Prophetic oracles refers to revelations of future events that are given by God to a prophet. In Daniel's case he is the one serving as the recipient of the prophecies. Prophecies as we shall see often contain symbolic elements which can make them challenging to interpret.

Apocalyptic material is a specific form of prophecy, largely involving symbols and imagery. It typically predicts coming disasters and destruction. Apocalyptic literature involves descriptions of the end of the world and typically depicts grandiose, cataclysmic events. We see in Daniel strange descriptions and bizarre imagery. Frequently events are described in metaphors, rather than in literal terms. All of this combines to make this form of literature a particular challenge to understand.

As I mentioned when we looked 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Daniel is constructed in a unique way. It's made up of two halves, each of which has its own literary style. The first half (chapters. 1–6) contains stories from the lives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 style here is largely narrative history. The second half of the book (chapters 7–12) contains prophetic oracles and apocalyptic visions.

When it comes to the original languages of Daniel we also see something interesting. Chapter one is written in Hebrew and then chapters two to seven are written in Aramaic. Chapters 8 to 12 reverts to Hebrew. Why you might wonder is this the case. Well it's actually very straightforward.

Those parts of Daniel which deal with, or generally concern themselves with Gentile affairs are written in Aramaic. This was the common language of these Gentile peoples. Those portions which were of a particularly Jewish interest (chaps. 1, 8-12) were written in Hebrew so that they might be better read and understood by Jews.

Let us turn now and consider who wrote this amazing book.

# 1.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 책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성경 중 한 권입니다. 다니엘은 대선자서 the book of the Major Prophets 의 다섯 번째 책이자 구약성경의 스물일곱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12 장, 357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원본은 9001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자신들의 성경에서 성문서 the writing 의 하니로 분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세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율법서 the Law, 예안서 the prophets, 그리고 성문서 the writings 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예안서에 속할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다른 유대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의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정부 관리(이방인 땅의 행정관)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장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책은 서술적인 역사narrative history, 예언적 계시prophetic oracle, 그리고 묵사적 내용apocalyptic material 이 흥미롭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서술적인 역사narrative history 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시대에 일어난 실제 시간과 상황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기원전 6 세기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의 경험을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언적 계시prophetic oracle 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준 마라의 시간에 대한 계사를 일컫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가 예언을 받은 선지지입니다. 앞으로 차차 보시겠지만 예언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사적 내용apocalyptic material 은 주로 상징과 이미지를 포함하는 특정 형태의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기올 재잉과 멸망을 예측합니다. 무사적 글은 세상의 종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장대하고 격변적인 사건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상한 묘사와 기교한 이미지를 봅니다. 사건들이 사실 그대로의 용어가 아닌 비유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에 대해 설교했을 때 보았듯이 다니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부분은 고유한 문학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전반부( $1\sim6$  장)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이벳느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의 스타일은 대체로 서술적인 역사입니다. 후반부( $7\sim12$  장)에는 예언적 계사와 묵사적인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원본에 사용된 언어 또한 흥미롭습니다. 1 장은 이브리어로, 2 장부터 7 장은 이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8 \sim 12$  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할 것입니다. 시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방인 문제를 다루거나 그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람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람이가 그 당시 이방인들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는 부분(1 장,  $8\sim12$  장)은 유대인들이 읽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놀记은 책을 쓴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 2 Who wrote it?

As with many books of the bible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surrounding the authorship of the book of Daniel. Some contemporary scholars hold that Daniel was not even a real person. He was, so they claim a legendary figure. They therefore propose an anonymous author writing around 167 BC rather than 530 BC when Daniel lived. This view helps them explain the amazing accuracy of Daniel's prophecies. Anyone can be "accurate" after an event has actually occurred. Naturally I do not hold with this view.

I, along with most conservative biblical scholars believe that there was a real Daniel and that he was the author of this book. The Jews from the earliest appearance of this book believed that Daniel was its writer. We have both good internal and external evidence to support this position.

Internally the book makes it abundantly clear in several places that Daniel is the writer (8:1; 9:2, 20; 10:2). On nine occasions we read the phrase, "I, Daniel."

Externally, the prophet Ezekiel mentioned Daniel (Ezek. 14:14; 28:3). Also of far more significance is that the Lord Jesus Christ spoke about this book as being written by the prophet Daniel (Matt. 24:15; Mark 13:14). In Matthew's gospel we read these words of Jesus,

"Therefore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u>Daniel the prophet</u>, standing in the holy place" (whoever reads, let him understand). (Matt 24:15)

So when Jesus Himself affirms that Daniel was a real person who authored this book the debate is over.

#### 2.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

성경의 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의 저자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이 실제인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니엘이 실었던 BC 530년이 아닌 BC 167년경에 실었던 익명의 저자가 다니엘서를 썼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예언이 놀라도록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견해를 고안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누군가가 그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성경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실제 인물이었고 그가 이 책의 저자였다고 믿습니다. 이 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그 책의 저자라고 믿었습니 다. 이러한 시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증거가 있습니다.

내부 증거는 다니엘이 팔지임을 책의 여러 곳에서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8:1; 9:2, 20; 10:2). 이홉 번에 걸쳐 "나, 다니엘I, Daniel"이라는 문구가 읽습니다.

오부 증거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을 언급했습니다(겔 14:14; 28:3). 또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이 책을 선지자 다니엘이 쓴 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마 24:15; 막 13:14).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위는 지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15)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실제로 이 책을 쓴 사람이었다고 찬히 확인하셨으니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 3. Who was Daniel?

Daniel's name in Hebrew means "God is my judge" or "Judge of God." He was probably born in or around Jerusalem sometime around 620 - 623 BC. The book of Daniel itself testifies to the fact that he was a Jewish captive, of noble descent, who was carried off to Babylon after Nebuchadnezzar's first conquest of Jerusalem in 605 BC. He was at this time aged somewhere between 13 and 20. We also know that he never returned from Babylon, and died there as an old man of between 80 and 90 years of age.

Daniel holds a very special place in scripture. He is one of very few individuals about which nothing negative is recorded. In fact, he had an outstanding reputation among his contemporaries for righteousness and devotion to God. From the testimony of those who knew him, he was known for his righteousness (Ezek 14:14, 20) and his wisdom (Ezek 28:3).

In fact Daniel became famous not only among the Jews but also the Babylonians, Medes and Persians for his great wisdom and integrity

Let us move on now and consider the dating of the book.

### 3. **다니엘은 누구였나**?

히브리어로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God is my judge" 또는 "하나님의 재판관 Judge of God"을 의미합니다. 그는 기원전  $620\sim623$  년경에 예루살렘 또는 그 주변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가 고귀한 기문 출신이고 기원전 605 년 노부갓네살의 첫 번째 예루살렘 정복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였음을 증언합니다. 그 당시 그는 13-20 세 사이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80-90 세 정도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정적으로 평기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니엘은 의롭고(겔 14:14, 20) 지혜로운(겔 28:3) 사람이었습니다.

시실 다니엘은 그 지혜wisdom 와 진실함integrity 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벨론,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에 게도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책의 연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 4 When was the book written?

Again this a subject that continues to provoke considerable debate. Don't worry, I'm not going to bore you with all of the arguments here. For conservative scholars the dating is quite straightforward. The events of the book of Daniel span the period from 605 BC (Dan 1:1) to 536 BC (Dan 10:1). We also must factor into our date setting that we know that Cyrus the Great, the last ruler mentioned by name died in 530 BC. This means that Daniel most likely wrote the book shortly after 536 BC (Dan 10:1) but before 530 BC.

Let us turn now to consider why the book was written.

#### 4 다니엘서는 언제 쓰여졌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모든 논쟁들을 열가하면서 여러분을 지겹게하지 않을테니 걱정 마세요. 보수적인 성경 학자들에게는 다니엘사가 쓰여진 연대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 년(단 1:1)부터 기원전 536 년(단 10:1)까지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름이 언급된 마지막 통치자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Cyrus the Great 이 기원전 530 년에 사망한 것은 알려진 역사적 시실이기 때문에 이 것 또한 연대 설정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이 책을 기원전 536 년 직휴(단 10:1), 그러나 기원전 530 년 이전에 기록했을 기능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5 Why was it written?

Very simply put Daniel was written to record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future events concerning Israel. The book's main message is as follows;

#### God is in control no matter how bad things look, and his kingdom will one day fill the earth.

When we think about the historic context in which Daniel was writing the importance of this message becomes apparent. Those Jews of Daniel's generation who were taken into exile must have thought their entire world had come crashing down. Taken from their homes, their culture, their religious system and their God. They must have wondered how they could go on living with hope in a wicked pagan culture. So Daniel writes with the following purposes in mind.

- He writes to show, from his own and his three friends examples how to remain faithful to God and live in hope even when surrounded by a wicked pagan culture.
- He writes to remind his readers that God is always in control. It is God who establishes and deposes kings. Therefore we should trust that He always knows best.
- He writes to remind his readers that God remains faithful in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m even whilst they are under divine discipline for their disobedience.
- He writes to graphically outline the prophetic period known as 'the times of the Gentiles' (Luke 21:24). The book shows the effect the Gentile nations will have on Israel while she is waiting for God's covenants to her to be fulfilled under the Messiah's reign.
- Finally he writes to reveal Israel's future deliverance and the blessings she will enjoy in the coming age. It serves to remind the Jews that God remains faithful.

Let us turn to briefly consider to whom the book was written.

#### 5 대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해서 다니엘서는 비벨론에서의 포로 생활과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미래에 일어날 시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왕국은 언젠가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다니엘이 책을 쓸 당시의 역시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메시지의 중요성이 분명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온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국, 문화, 종교 체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이방인의 세상에서 무슨 희망을 갖고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의 예를 들면서 시약한 이교도 문화에 둘러써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한 채 소 명을 품고 살이갈 수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상기사키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예사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항상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 다니엘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산실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 다니엘은 '이방인의 때the times of the Gentiles'(누가복음 21:24)로 알라진 예언적 시대를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시기인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동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보여줍니다.
-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스리엘의 구원과 그들이 누릴 축복을 계시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시실을 싱ን시켜 줍니다.
- 이 책이 누구에게 씌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6 To whom was it written

As I think we have established the Book of Daniel was primarily written for a Jewish audience. In particular those who had been taken by force from Judah and relocated to Babylon. It would be this group initially at least, and those who would later return who would benefit most from Daniel's words.

Let us conclude our survey by briefly summarising what the Book of Daniel is all about.

## <u>6</u>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나?

저는 다니엘서가 주로 유대인 청중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다에서 강제로 끌려가 비벨론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알차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또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책에 대한 시전 조시를 미무리하겠습니다.

#### 7 What's it all about?

I shall give you just a very brief skeleton overview here. In 605 BC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conquered Judah. Along with many of the temples treasures he also took the very best of Jewish society back to his cultural centre the city of Babylon. This would be done in three successive waves.

In the first wave went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best known by their Babylonian name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ese men would be trained in order to assume governmental roles in the Babylonian empire. They proved to be exemplary in many ways and were soon promoted. It wasn't all plain and easy sailing however. The first part of the book of Daniel tells us about their experiences as devout and loyal Jews in this pagan world. It shows through some memorable stories how they stayed firm and resisted Nebuchadnezzar indoctrination programme.

The second part of Daniel contains four visions. The first is of four hybrid sea beasts which moves into one about the Son of Man and the Ancient of Days. The second vision is of a ram, a goat and a horn. The third vision is about the seventy weeks. The fourth and final vision beginning in chapter 10 has Daniel seeing what will occur in the end times.

With our survey now complete let's get into Daniel.

#### 7 다니엘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주 간단하게 뼈대 개요만 제공하겠습니다. 기원전 605 년 비벨론의 느부갓네살 2 세가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많은 보물과 함께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을 이교도 중심지인 비벨론 도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유배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유배 행렬에 다니얼과 그들의 바벨론 이름으로 잘 알려진 그의 세 친구인  $\square$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 제국에서 정부 일을 맡도록 훈련을 받게됩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었으며 곧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탄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첫 부분에서는 그들이 이 이교 세상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서 겪은 일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굳건함을 유지하고 느부갓네살의 세뇌프로그램에 저항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의 두 번째 부분에는 네 개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고한 모습을 한 네 짐승들의 환상으로 시작하여 인자the Son of Man 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Othe Ancient of Days 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환상은 숫양, 숫염소 그리고 뿔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칠십 이레에 관한 것입니다. 10 장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환상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봅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ŀ
--	---------------	---

1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Jehoiakim king of Juda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and besieged it.

Verse one places us at a very specific point in history. We learn that these things happened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Jehoiakim.** Some see a contradiction here with what is recorded by the prophet Jeremiah. Jeremiah says it was *in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Jer 46:2). This is not a problem for the following reason. Daniel reckoned a king's years following the Babylonian method. This should not surprise us. He had lived most of his life in Babylon and therefore it was only natural that he would follow their chronology. They considered the first year of a king's reign to begin at the start of the calendar year *after* he took the throne. Jeremiah was using the Jewish method.

I think it will be helpful if I give you a very brief time line of some of the key events that have got us to this point in history.

### 1 유디의 여호이임왕 3 년에 비빌로나이의 느부깃네실왕이 예루실템을 포위하였다.

1 절은 역사상 매우 특정한 사점을 언급합니다. 여호이김 통치 3 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선지자 예레미이의 기록과 모순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이는 그 때가 *여호이김 4 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렘 46:2). 이러한 모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방식으로 왕의 연수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살았으므로 그들의 연대 방식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바벨론 방식은 왕의 통치 원년을 왕위에 오른 후에 다음 해가 새로 사작할 때로 간주했습니다. 예레 미이는 유대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역시적인 주요 시간들의 긴략한 연대표를 제시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time of Israel's monarchy began in about 1050 BC with Israel's first king, Saul. After a 40-year reign he was succeeded by David (1010-970 BC). He also reigned for 40 years and was then succeeded by his son Solomon. Solomon started well but ended badly. The united nation was split into two in 930 BC.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The northern kingdom comprising ten tribes had 19 ungodly kings. As a consequence God allowed them

to be taken captive by Assyria in 722 BC.

The southern kingdom comprising two tribes remained in the land for a further 120 years. Of the 20 kings who ruled over Judah 12 were ungodly and 8 were godly men.

In October 626 BC, the Babylonian prince Nabopolassar (Nebuchadnezzar's father) defeated the Assyrian army outside of Babylon and claimed the throne in a coup. Nabopolassar consolidated his empire and by 616 BC he was on the march to expand his territory. He destroyed Nineveh, the capital of Assyria in 612 BC.

With the Assyrians gone Egypt sensed an opportunity to expand their own territory and reclaim Judah. So in 609 BC, Pharaoh Neco marched his Egyptian army toward Haran. This occurred when King Josiah the 16<sup>th</sup> king of Judah was on the throne. He did not want Egypt to replace Assyria, and so he led his army to stop their advance. A battle took place on the plain of Megiddo and Judah lost. King Josiah was killed in the battle. Following this defeat of Judah, Egypt assumed control of the region.

Judah had appointed Jehoahaz king in place of his father Josiah but after a reign of only 3 months he was deposed by Pharaoh Neco and taken to Egypt. Neco appointed a vassal king to rule over Judah. He was Josiah's son Eliakim, but the Egyptians changed his name to Jehoiakim.

In 605 BC the Egyptians/Assyrians faced the Babylonians at the battle of Carchemish. The Babylonians led by the 25-year-old Nebuchadnezzar II won a decisive victory.

As an aside his name should properly be pronounced as Nabu-Kudduri-Utzer which means, "Nabu, the Babylonian god of wisdom protects the crown."

Nebuchadnezzar was about to move south to attack Egypt when he learned of his father's death. He returned to Babylon and assumed his position of king. He would enjoy a long and successful reign of 44 years. He was not however content to sit back and enjoy the splendours of Babylon for long. In September of 605 BC he returned with his army to Judah. He sought to solidify his rule over the region of Judah by conquering the city of Jerusalem.

So Daniel begins with this tragic event. The mighty armies of the Babylonians surrounding the holy city. There would be no way the forces of Judah would be able to withstand such an onslaught.

Interestingly this specific attack mentioned by Daniel is documented by the Babylonian Chronicles. These are a collection of stone tablets discovered in 1887 and kept today in the British Museum. Nebuchadnezzar's 605 BC presence in Judah is documented and clarified in these tablets.

Let us now read on and see what happened when the city eventually fell.

이스리엘의 왕정시대는 기원전 1050 년경 이스리엘의 첫째 왕 시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DDD 40 년의 통치 후에 다앗 기원전 1010-970 년)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다윗 또한 40 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930 년에 단일국가가 둘로 갈리졌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리엘과 남쪽 왕국 유다입니다. 열 지따로 구성된 북쪽 왕국은 19 명의 약한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22 년에 북아스리엘이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두 지피로 구성된 남쪽 왕국은 이후 120 년 동안 그 땅에 살았습니다. 유디를 통치한 20 명의 왕 중 12 명은 시약했고 8 명은 경건했습니다.

기원전 626 년 10 월, 비벨론의 왕자 나보폴라시르(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비벨론 외곽에서 앗수르 군대를 물라치고 쿠데티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보폴라사르는 자신의 제국을 강성하게 했고 기원전 616 년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612 년에 앗수르의 수도 나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앗수르인들이 정복당하자 이집트는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유다를 되찾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9년에 파다오 느그는 이집트 군대를 하란을 향해 진군사켰습니다. 유다의 16 대 왕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이집트가 앗수르를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므깃도 평자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유다가 패배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전투에서 전시했습니다. 유다가 패배한 이후 이집트가 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요시이를 대신하여 그의 이들 여호이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지만 불과 3 개월의 통치 끝에 피라오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에 대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느고는 유다를 다스릴 가신 왕vassal king 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요시이의 이들 엘리아 김이었으나 애굽인들은 그의 이름을 여호이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원전 605 년에 이집트인 앗수르인은 갈그미스 Carchemish 전투에서 비벨론 군들과 대결했습니다. 25 세의 느부 갓네살 2 세가 이끄는 비벨론 군대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담으로, 그의 이름은 Nabu-Kudduri-Utzer 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비벨론의 지혜의 신 나부가 왕만을 보호하다 Nabu, the Babylonian god of wisdom protects the crown."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벨론으로 돌아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44 년 동안 길고 성공적인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히 앉아서 비벨론의 영광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05 년 9 월에 그는 군대를 이끌고 유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함으로써 유다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비극적인 시전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실렘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비벨론 군대. 유다 군대가 그러한 공격을 막이낼 방법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이 언급한 이 구체적인 공격은 바벨론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전이 기록된 석판들이 18 87년에 발견되어 현재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디에 있었다는 시설이 이 석판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도시가 함락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실펴보겠습니다.

2 And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hand, with some of the articles of the house of God, which he carried into the land of Shinar to the house of his god; and he brought the articles into the treasure house of his god.

I want you to note how Daniel records what happened. He tells us that it was the Lord that was responsible for Nebuchadnezzar's dominance of Jehoiakim. He quite rightly viewed God as sovereignly controlling not only the affairs of His chosen people, but also all the other peoples and nations in existence. This, as we will see will be a recurring theme throughout the book.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in these dark days that God always remains in full and complete control. He's never taken by surprise or shocked by unexpected events as we are.

So Nebuchadnezzar has conquered Judah and taken the city of Jerusalem. This means that he had captured and imprisoned king Jehoiakim. He would be taken as an exile to Babylon (2 Chronicles 36:6)

We also learn here about what Nebuchadnezzar did with some of the temple treasures or articles. Included here might be the incense stand, the menorah and other precious temple items. He did not take all the furnishings at this time. The remaining furnishings and articles were either hidden before Nebuchadnezzar came, or they were brought to Babylon later. What's the significance of

doing this? Apart from the material value represented by these prizes why do this?

In the ancient world when you had successfully conquered a people group or nation you would empty their temple or worship place of all its treasures. These you would carry or transport back to your own places of worship.

With this symbolic act you were asserting that not only were you physically more powerful than these people, but also on a spiritual level the gods you served were also more powerful. When a people were beaten so was their god or gods. So in this case Nebuchadnezzar is stating that his god, most likely Marduk was mightier that Yahweh the God of Israel.

But we should also remember what the loss of these temple articles meant. It meant an end to temple worship. Israel had a four-hundred-year-old tradition of offering sacrifices in the Jerusalem temple but now this had come to a dramatic end.

These temple treasures were carried back Daniel tells us into the land of Shinar. The land of Shinar is referenced eight times in the Old Testament. On every occasion is is used in connection to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Babylonia. This region is significant for a number of reasons. It was the location of the Tower of Babel. In fact the land of Shinar earned the name of "Babel" or "Babylon" (Genesis 11:5–9) which means "confusion."

Shinar was always associated with wickedness. It is also associated with the depraved worship of false gods, and in the end times, Babylon the Great is the centre of wickedness and demon worship. But according to the prophet Isaiah (11) Shinar is also a place that will contain a faithful remnant of Israel. A remnant that God will save. So Daniel is saying that these temple articles, and later people will be taken into a place of wickedness and evil. But God has not forgotten them and will one day rescue them and return them to the land.

Once the temple treasure reached Babylon Nebuchadnezzar would have found them a suitable place in one of their impressive temples alongside one of their many gods. The Babylonian religious system was polytheistic, they worshipped many gods instead of just one As I mentioned before The most famous of the Babylonian gods was Marduk. On occasion, he was named "Bel" (meaning "Lord"). According to Babylonian myth, Marduk created human beings from the blood of a defeated god in order to save the gods from the toils of labour. Other popular Babylonian deities included Nabu, called Nebo in the Bible, the god of scribes and education; Shamash, the sun god; Nergal, the god of the dead, and Ishtar, the goddess of love.

And so the scene is set. Judah has fallen. The city of Jerusalem has been captured. Babylonian supremacy has been established. The temple has been ransacked of its treasures. Temple worship therefore can no longer continue. What a totally dispiriting time for God's people. What hope do they have.? Well as we shall see over the coming weeks the remainder of Daniel provides us with models of courage, fidelity, hope, and patience.

Let us conclude today's sermon by examining what we can learn from the opening verses of Daniel.

# 2 여호와께서 여호이킴읭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집이기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 비빌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다.

다니엘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주목해 주세요. 그는 여호와께서 여호이김을 느부깃내실에게 넘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국가도 주권적 으로 통제하신다고 이해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것은 이 책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암울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그분께는 놀랄 일도 예상치 못한 일도 결코 없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유디를 정복하고 예루실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는 여호이김 왕을 사로잡아 기두었습니다. 그는

비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대하36:6)

이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일부 보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됩니다. 여기에는 향대incense stand, 촛대menorah 및 기타 귀중한 성전 물품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때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져기지 못했습니다. 일부 성전 비품과 기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에 미리 숨겨졌거나 일부는 나중에 비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전리품들의 물질적 가치는 제쳐두고라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정복하면 그들의 성전이나 예배 장소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이 보물들은 정복자들의 예배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상징적 행위를 통해 그들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패배하면 그들의 신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느부 갓네살은 그의 신 Marduk 이 아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전 기구들의 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 예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시를 드리는 전통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것은 극적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성전 보물들이 시날 Shinar 땅으로 옮겨졌다고 다니엘은 기록합니다. 시날 땅은 구약성경에 8 번 언급되는데 모든 경우에 비벨론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비벨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날 땅은 "혼란 confusion"을 의미하는 "비벨" 또는 "비벨론"(창 11:5-9)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시날 Shinar 은 항상 시약함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숭배와도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때에는 큰 성 바벨론 Babylon the Great 이 시약함과 귀신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11)에 의하면 시날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지들이 있을 곳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 대서 다니엘은 이 성전의 기구들과 나중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이 시약한 곳으로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전 보물이 바벨론에 도착하면 느부갓네살은 많은 신들을 모시는 대단한 성전 중 하나를 찾아 그 신들과 함께 보관할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 체계는 다신교였으며, 한 신이 아닌 여러 신을 숭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벨론 신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둑 Marduk 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벨Bel"("주 Lord"를 의미) 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벨론 신호에 따르면, 미둑은 노동의 수고에서 신들을 구하기 위해 패배한 신의 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다른 유명한 바벨론 신은 나부 Nabu 이고 성경에서는 그를 느보 Nebo 라고 부르는데 읽고쓰기와 교육의 신입니다. 태양신 미디그 Shamash, 죽음의 신 네르갈 Nergal 과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 Ishtar 등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실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비벨론이 패권을 차자하였습니다. 성전의 보물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희망을 기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서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용기, 충성 희망, 인내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다니엘서의 첫 구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one point to make from today's study. 오늘 공부를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 1 God's patience is not without end

In 2<sup>nd</sup> Peter 2:9 we read the following.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as some count slackness, but is longsuffering toward u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In some translations the word "longsuffering" is translated as "**patience**." We like to think of God as being patient and slow to come to anger. As naughty children we like the idea that God might be like an over indulgent father. Overlooking, or waving away our indiscretions.

For decades, prophets had been warning Judah that God would punish her for her gross sins and rebellion. In the final years, these warnings reached a fever pitch. However, Judah did not listen. The prophets were ignored, scoffed at, thrown into prison or abused in other ways. The people of Judah pictured God as an ever patient, over indulgent father. But God's patience is not without end. God sent the Babylonians in 605 BC as His instrument for bringing about change.

God planned to use 70 years of captivity to bring the people to their knees and turn them back to Himself. Although His judgment was severe it was also just and deserved. Daniel for example was taken as a young man and never returned. God however never forgot His promises to David and always preserved a remnant of the nation, and a remnant who was faithful to himself.

So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us? A great deal especially when it comes to our attitudes toward sin.

Sin, as I often tell you always comes with consequences. Sin hurts us, and it hurts God. God had promised Israel great blessings and prosperity if they were faithful. He also warned them about the results of disobedience. Though they were given a clear choice between the two paths (Deuteronomy 28), with the destination of each foretold, they still wilfully chose rebellion.

Given that we know that rebellion towards God has consequences why do we continue to sin? Why, just like the nation of Judah do we wilfully choose rebellion? The simple answer is that although we have been saved by Christ's atoning sacrifice we are still fallen sinful beings. Although we desire not to sin we all repeatedly fall into sinful thoughts and acts.

Perhaps like the people in Judah we think God has missed our particular sin. Maybe we think that He is so patient and kind that He will just overlook it. Brothers and sisters let us not live in self-deception. God is patient but His patience is not without end. Eventually if you persist in your sin God's patience will expire. Like any truly loving and caring father He will eventually chastise and punish you. To not punish is actually an unloving act. So rest assured,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you persist in sin. God may start with a stern rebuke. If that fails to bring us to repentance He may resort to something stronger. Something more memorable and effective. Something you do not want to have to experience.

Fortunately if you have put your faith and trust in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there is a means of dealing with your sin. The solution is regular repentance.

In first John chapter one verse nine we read

#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sn't that a beautiful verse. No matter how dirty and depraved we are if we confess our sins Christ's blood is sufficient to wash us clean. Through our act of confession and repentance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estored. So let us get into the habit of regularly confessing our sins so that we do not try God's patience.

# 1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은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 장 9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부 번역서에서는 "오래 참음long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인내patience**"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

래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를 원합니다. 버릇없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가 남자도록 관대한 아버지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별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아버지

수십년동안 선지자들은 유디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각한 좌와 반역을 벌하실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마지막 몇년동안 이라한 경고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고 학대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언제나 참으시고 끝없이 관대하신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단으로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는 70년의 유배의 삶을 통해 백성들을 무릎꿇게 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심판은 기혹하였지만 그것은 또한 공으롭고 합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 백성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들을 항상 자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히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커디란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조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그분께 순종하면 큰 복과 번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두 선택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신명기 28 장), 그리고 각각의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알려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에 대해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왜 유디처럼 우리도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싶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반복적으로 좌악된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참을성이 많고 관대하셔서 그냥 지나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자만 그분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더이상 인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분도 결국에는 당신을 장계하고 벌하실 것입니다. 벌하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꾸짖음으로 사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가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오래 남고 효과가 확실한 것, 우리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다행하도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믿고 신뢰한다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기적인 회개입니다.

요하일서 1 장 9 절에 기록하길

# 민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지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샤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이름다운 구절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지박하면 그라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회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합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